

## 주일 2 부에배

10:15 ~10:30 전교인 찬양 연습

10:30 ~10:50 교회소식 / 성경 봉독

10:50 ~11:00 예배를 위한 개인기도

※ 예배로의 부름 찬양하라 내 영혼아(새 621)

※ 신앙고백 사도신경

목회기도 최용제 집사

※ 봉헌 / 감사 봉헌: 문선주 성도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 전성도찬양 너희 죄 흉악하나(새 255)

설교 강래성 목사 / 창세기 강해 24  
“셋째 날” 창 1:11-13

찬양 / 기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죄 속해 주신 주께(215)

※ 축도 강래성 목사

### 청지기 보고

지난주일 청지기 보고

|          |            |
|----------|------------|
| 연보       | \$3,085.00 |
| 감사연보     |            |
| 특별연보(지목) |            |
| 특별수입     |            |
| 합계       | \$3,085.00 |

### 월별사역계획

매주일오후 3 시-당회

첫째주-한가죽특강

둘째주-동산모임

셋째주-부서별 모임

넷째주-소그룹 모임

다섯째주-제직회

성찬-2 월, 4 월, 7 월,  
11 월

### 9 월 회중기도 및 봉사명단

|     | 주일 1 부 | 주일 2 부 | 수요기도회      | 봉헌자 |
|-----|--------|--------|------------|-----|
| 첫째  | 김은석    | 이의로    | 서영주 (8/29) | 문선주 |
| 둘째  | 문명철    | 정윤구    | 이영옥 (9/05) |     |
| 셋째  | 서성권    | 양지근    | 정선희 (9/12) |     |
| 넷째  | 조성준    | 최용제    | 차영아 (9/19) |     |
| 다섯째 | 전현석    | 임영규    | 임순희 (9/26) |     |

## 이단 3- 구원과 4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죄 사함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신 그 이유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다. 즉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 같은 자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고자 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구원 받음에 매일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죄를 보면서 죄 있는 자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고 십자가의 용서를 알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자신이 늘 죄 가운데 있음을 절감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죄를 보지 않고 죄 사함의 은혜를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죄가 없는 곳에는 죄 사함의 은혜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말하면서 다시는 죄가 없기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죄 사함을 자기 구원을 위한 도구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번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또 다시 자기 죄를 돌아보는 것은 빠져 나온 구렁텅이로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원 받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이 신자를 죄 사함의 은혜로 인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 사함으로 인한 구원이 그 목표가 아니라 영광의 찬송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알게 함으로써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은 롬 7:19-20 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고백하면서 늘 죄에 끌려가는 자신을 두고 탄식한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신자가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죄를 보면서 인간의 본질인 사망이라는 자기 실체를 실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때문에 구원 받은 신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자의 어리석은 말에 지나지 않는다.

## 교회소식

♥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 교우소식- 한국 방문 : 유창환, 유주연, 유오례 성도
- ❖ 주일학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문의:김은석 집사)
- ❖ 9/16 주일 전액 연보를 선교에 지원합니다. (\$3,085)
- ❖ 오늘 애찬후, 소그룹 모임으로 말씀 은혜를 나눕니다.  
인도자는 애찬전에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 ❖ 10 월부터 초월별로 하반기 전 성도 가정을 심방합니다.  
각 가정들은 초월 담당 장로님과 심방 스케줄을 상의해주세요.
- ❖ 제 1 기 남성 양육 성경 공부 (매주 화 저녁 7 시)  
명단 : 김은석, 김종문, 서성권, 성시철, 이의로, 최동명, 황강진
- ❖ 매주 금요일 오후 7:30~9:00 개인기도회, 예배당(문의:유창환 집사)
- ❖ 목회자와 티타임을 매월 둘째주 애찬 후에 갖습니다.(문의:문선주 성도)

## 예배시간안내

|               |  |
|---------------|--|
| 주 일 예 배       | -1 부 - 오전 9:00, 2 부 - 오전 10:30<br>-EM (youth) - 오전 10:30, Jonathan Kim<br>-유초등부 - 오전 10:40, 김은석 집사 |
| 수 요 집 회       | 오후 7:30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 금 요 개 인 기 도 회 | 오후 7:30-9:00   |

# 에덴교회는 오직 예수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표지  
말씀의 울바른 선포  
치리의 신실한 집행

제 2018 - 42 호

2018년 9월 22일

## 주일 1부 예배

- ※ 예배로의 부름 찬양하라 내 영혼아(새 621)
- ※ 하 이 텔 제 63(인도자):  
베 르 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교 리 문답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제 24 주일)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회중):**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목회기도 조성준 집사

교회소식

봉헌기도

설 교 강래성 목사 / 창세기 강해 24  
“셋째 날” 창 1:11-13

※ 찬 양 내 죄 속해 주신 주께(215)

※ 축 도 강래성 목사

※ 표는 일어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서,  
연보함은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에덴장로교회

EDEN PRESBYTERIAN CHURCH

가르치는 장로 : 강래성

다스리는 장로: 김부익, 금동성, 문명철

905 Euclid Street, Fullerton, CA 92832

http://www.edenpchurch.org C:714.733.3486